



# 병 동 속 보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 / 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 / 노 재 옥

너희는 코로나를 잡는다며,  
노동자를 잡는다.

나는 보건의료노동자가 아니라, 병원의 노동 착취와 억압에 놓여 있는 노예다.

속박과 굴레를 벗어나 일하는 참맛을 알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한 파업에 참가한다.

## 파업 참가자 준비 지침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파업은 9월 2일 06:30분부터 돌입합니다. 이에 9월 2일 D번 근무자부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파업투쟁을 전개합니다. 이에 따른 파업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9월 2일 D, E, N, S 근무자 모두 근무를 중단하며 파업에 참가합니다.
- ▲ 집결 일시 및 장소 : 오전 9시, 노동조합에서 공지한 장소로 집결합니다.
- ▲ 파업 일정 : 오전 9시 세종시로 이동하여 산별총파업 참가 후 오후 4시부로 복귀합니다.
- ▲ 파업은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 ▲ 안전한 파업을 위해 방호복, 페이스세드, 마스크가 제공됩니다.

## 중간관리자 부당노동행위 신고바랍니다.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파업은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입니다.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을 향한 중간관리자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될 시 노동조합은 기관장 및 행위 당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 파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노동조합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발언)
- ▲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
- ▲ 부서장과 개인 면담을 통해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
- ▲ 문자 및 공지사항으로 파업 참가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 등을 당하거나 목격할 시 노동조합에 신고 바랍니다.

#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최전선에 서 있는 간호사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치절한 절규와 외침에 응답하라!

성명서 자세히 보기 >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벌써 1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비대면과 마스크가 일상이 된 세상에 우리 국민들도 적응해 가는 중이다.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은 한가지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호사를 포함한 수많은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맞서 땀과 눈물로 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의료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은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 희생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상시적인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료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감염병을 전담할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튼튼히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지침의 준수,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함께 의료노동자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극복할 시점이 되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요구 중 특히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인력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PA간호사 등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정부와 국회가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땀과 눈물로 지금까지 버텨온 간호사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치절한 절규에 즉각 응답하여야 할 것이다.

2021. 8. 26.

대한간호협회